

북디자인 오진경

텍스트를 읽는 능력, 언어적 감각이 중요해요





주인 없는 작업실을 마음 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행운이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 취한 자세는 또 다른 여백을 낳는다. 손길을 탄 사물의 몸짓만 보아도 자연스레 그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지기 마련. 홍대 미대 교수였던 독일인 헬무트 슈미츠 교수가 디자인한 큼지막한 포스터를 보니 홍대 미대를 졸업했을 것이고, 《공중그네》 《우리는 사랑일까?》 《남쪽으로 튀어》 《대한민국사》 《연금술사》 《지훈사랑판》 《우리가 사랑했던 것》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등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은 방 주인 머릿속에서 길러낸 아이디어들이 응집된 결과물이며, 한쪽 벽면에 웅기충기 어우러진 표지 시안들은 최근 작업물일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했다. 전체적으로 풍겨오는 기운은 소탈하고 시원시원한 매력을 지닌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오진경(36) 씨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북디자인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이문재 시인을 만나면서부터이다. 홍익대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오리콤에서 광고디자이너로 4년간 일했던 그녀에게 “문학동네 편집주간인 이문재 시인을 만나보라”는 지인의 소개로 난생 처음 시인을 만났던 감흥을 들려줬다. 문학동네에서 북디자인을 시작해 프리랜서인 현재까지 그녀의 북디자인 경력은 8년째다.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준비를 하던 중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정착했다.

예술이라는 분류 속에 들어가는 문학작품의 책표지는 당연히 화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허용되던 시대가 있었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첫 관문인 책표지는 메타포이다. 일본소설의 표지가 구체적이라면, 국내소설은 대개 추상적이다. 초기에는 소설 등 문학작품을 주로 디자인하다 이제는 디자인의 폭이 한층 넓어진 오진경 씨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책은 텍스트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 자체로 독자들을 만날 수 없지요. 디자인까지 갖춰 완결성이 생겨야 비로소 책이 됩니다. 책이 갖는 완결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역할에 디자인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녀가 생각하는 북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텍스트를 읽는 능력, 즉 언어적인 감각이다. 텍스트 해석 능력은 단순히 제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활자를 접한 사람만이 조형적인 미를 갖춘 타이포그래피를 개발해 낼 수 있다. 어쨌든 북디자이너는 텍스트와 얽혀 가는 운명을 지녔다. 그녀가 작업했던 표지를 보면 ‘제목이 주는 뉘앙스를 재밌게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진경 씨는 ‘파라 텍스트’ 개념을 꺼냈다. 본문을 뺀 나머지(서문, 발문, 헌사, 판권, 저자 소개, 표제, 부제, 차례, 서평 따위)를 파라 텍스트라고 하는

데, 본문 텍스트가 저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면 파라 텍스트는 편집자의 주요한 권한이다. 디자인 역시 파라 텍스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북디자인의 영향력은 강력해졌다.

“작업할 때 편집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전문가를 가려낼 전문가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맡겼으면 전문가를 믿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맡기지 말아야죠.”

최근에 나온 《울엄마》는 속이 후련한 책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의뢰를 받은 지 2년 만에 나왔다.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되지 않으면 보호시설로 보내지는데, 그 아이들의 문예작품을 모아 발간한 30주년 문집이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을 받고 결국 “복 받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어렵게 책을 냈다.

곧 나오게 될 《임찍정》의 표지도 기대된다. 시간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일까. 10년 전에 출간된 《임찍정》에 박재동 선생이 삽화를 그렸다. 당시에는 무명이었지만 이제는 유명한 삽화가이지 않은가. 이 외에도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세계7대 불가사의》, 의뢰받은 일본소설들이 있다. 요즘에는 연구공간 수유 너머에서 《동의보감》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정말 재밌다며 목소리가 상기되는 걸 보니 그녀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연료인가 보다. 계획을 말할 때 달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 “이렇게 쪽 가는 거예요. 북디자이너 정말 좋은 직업이라니깐요!”

윌리엄 찬닝이 ‘모든 사람은 다 한 권의 책이다. 그 책을 읽는 법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책 한 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을 부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문**